

금호타이어 노조 “쟁의발생 결의”

6월 1-2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... 기본급 13만4690원 인상 요구

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를 결의했다.

금호타이어노조는 5월2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린 노조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고 5월28일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는 6월 1-2일 전체 조합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등 쟁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.

노조는 5월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2008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5월2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한편으로 쟁의발생을 전격 결의했다.

노조의 2008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요구안은 기본급 13만4690원 인상, 정기상여금 50% 인상, 휴가비 15만원 인상, 가족·근속·안전·생산장려 수당 인상, 국내공장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등을 담고 있다.

금호타이어는 “노조 요구안에는 공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의제를 정한 다음 상견례를 할 계획이었다”며 “대화창구가 열려있는 만큼 노조와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5/28>